

文化的存在としての「もの」：博物館展示と関連して

著者	金 柄徹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44
ページ	161-168
発行年	2003-12-26
URL	http://doi.org/10.15021/00001859

文化的存在としての「もの」

博物館展示と関連して

金 柄徹

1 はじめに

本稿は、2002年7月13日-14日に国立民族学博物館で行われた国際シンポジウムにて報告した発表文に基づくものである。貴重な機会を提供して下さった朝倉敏夫教授にまず御礼を表したい。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趣旨は、『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くらし』展を準備する過程で得られた「李さん一家の生活財データ」を手がかりに、韓国社会における（生活財調査による）生活文化研究の有効性を検討することであったと思われる。韓国側からは主に物質文化研究者が、日本側からは「韓国現代生活文化の基礎的研究」のメンバーが議論に参加しており、筆者は「もの」の性格に関するいくつかの問題を提議させていただいた。以下にその内容を記すことにする。

2 「もの」の性格

2.1 もので語る・ものが語る

博物館の展示は主に「もの」の展示であるが、この場合、企画者は「もの」を通じて（対象文化を）語ることとなる。この作業は、言い換えれば「もので語る」ことと言えるものである。一方、展示されたものが自ら語る「ものが語る」領域も想定できよう。つまり、企画者が意図していない部分まで観客によって読み取れる可能性は十分あり得るからである。今回展示された「李さん一家の生活財」からいえば、ものを通じて「素顔のくらし」が語られているわけであるが、同じものであっても観客一人一人の感じ方は、それぞれが有するそのものとの経験によって違ってきていると思われる。これはものが多義的な存在であり、また直接その個人に語っ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2.2 ものの影響力

1個のものが既存の生活様式や体制までも変えてしまったケースを歴史上で探すことはさほど難しくない。たとえば、西洋に渡った香辛料が西洋人の食生活スタイルを変え、またアジアへの航海を促したことで、イギリスが持ち込んだアヘンによって中国（清）が大変苦しんだこと、16～19世紀に奴隷との交換品として西アフリカ社会に持ち込まれた

銃が結果的には奴隷獲得を容易にする一方、地域の政治的統合をも促したことが取り上げられる。

2.3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文化の均質化」？

このようにものもたらすインパクトは強いものであり、リアルタイムで地球規模の交流が行われつつある現代においてその影響力はますます大きくなっている。「文化の均質化」が進んでいるとの見方もある。確かにPLAY STATIONといった日本のゲーム機を世界が共有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ことや西洋式近代化を進めてきた日本や韓国が西洋社会と多くのものを共有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考えると、均質化は身近に感じられる現象であろう。しかし、いくら伝統家屋がアパートやマンションなどの集合集宅に変わってきているとはいえ、日本のマンションには畳部屋の和室が設けられており、韓国の上にはオンドルという床暖房が敷かれている。また、冷蔵庫や洗濯機というものが現代文明の象徴のように世界中で使われているが、キムチ冷蔵庫や煮沸洗濯機など独自の文化が組み込まれていく現象も看過してはいけないだろう。(筆者の調査地の)瀬戸内海の島では魚群探知機にしても、GPS(衛星利用測位システム)にしても、漁民一般に統一された使い方が存在するのではなく、各自が先端装備を「自分流」で使いこなしていたことが印象的であったが、こうした事例からも同様のことが言えるだろう。

2.4 ものと文化——普遍性(代表性)と特殊性の観点から

日本の大学生に、所持品の中で日本文化だと思うものは何かと聞いたことがある。答えとして多かったのは(夏だったので)扇子・和紙・梅干・お守りなどだった。しかし、その他の所持品の多くはどの文化に属するものかがわかりにくいものが多かったようである。ここで疑問に思ったのは、何を基準にそれが特定の文化(のもの)と言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事例で挙げたように明らかに日本文化と言えるものもあるが、そうではないものも数多くある。これはものという物質文化に限らず、文化一般に言えることであろう。このような文化の共存(coexistence)や文化の混合(syncretism)が当然の現実だとすれば、李さん一家のものは果たしてどれぐらい韓国文化を代表し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か。

3 「身体技法」の展示可能性

ミイラ・人骨・刺青といった「もの化」された人間(の一部)の展示は博物館でも行われているが、人間の身体技法をものとして捉え、展示することも可能なのだろうか。

身体技法(*les techniques du corps*)とはモース(M. Mauss)の提唱した概念であるが、簡単に言えば、挨拶・座り方・眠り方など社会文化的に伝承・習得される身体の動作の

ことをいう。例えば、食べる行為を見ると、お腹が空く（食べないと死ぬ）という本能的な部分と、食事作法・特定の食べ物に対する規定といった文化的な部分が混在されている。後者の文化的な部分の中で、身体と関わる作法が身体技法である。

広島県豊島の漁民は伝統漁法の一本釣りに携わっているが、彼らは漁に適した漁場の位置・風向・風速・潮の流れ・水深・魚の居場所・魚までの距離・食いつき具合などを絶えず身体で確認しているのである。つまり、身体をもう一つの道具として使っているわけであるが、彼らのこうした「行動」を展示するためには映像を用いることも一つの方法と思える。また、漁具を作る過程を直接演じることも可能だと思う。この意味では、韓国の着物の試着やハングル教室といった今回の展示の中での試みも、着付けや読み書きという身体技法の展示として捉えられるものと思われる。

4 おわりに

今回の展示と関連して今後の課題として二つほど思い浮かんだことがある。

まず、日本と韓国におけるものの見方と、ものへのこだわりの違いについてである。伝統社会において日本がアニミズムの世界（ものの世界）であるのに比べ、韓国は儒教（性理学）の世界（理念の世界）であるとよく言われる。今後のものを通じた文化展示のためには、これがどれほど有効な明言なのか、あるいは実情はどうだったのかを綿密に検討してみる必要があるだろう。また、現代社会においても通用するものかどうかに関しても考察が必要であろう。

もう一つは、李さん一家のものとの関わり方に関することである。一家は家族の「共同の記憶」としての生活財すべてと別れたわけであるが、かつての記憶や家族の絆（の一部）も一緒に消えた可能性はないだろうか。そうだとすれば、一家が如何に既存の家族関係を回復し、あるいは新しい関係を築いていくのかを見守ることも新たな課題とな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文 献

朝倉敏夫・佐藤浩司編

2002 『2002年ソウルスタイル』千里文化財団。

朝倉敏夫

1994 『日本の焼肉 韓国の刺身』農山漁村文化協会。

伊藤亜人

2003 「韓国で『物を通してみる』こと」朝倉敏夫編『「もの」から見た朝鮮民俗文化』新幹社。

金柄徹

2000 「漁民の身体技法」『民族学研究』65 (2)。

M. モース (有地亨・山口俊夫訳)

1976 『社会学と人類学Ⅱ』弘文堂。

内堀基光

1997 「ものと人からなる世界」青木保他編『「もの」の人間世界』岩波書店。

문화적 존재로서의 「사물」

박물관 전시와 관련하여

김 병철

1 머리말

본고는 2000년 7월 13일, 14일에 국립민족학 박물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보고한 발표문에 기초하고 있다. 귀중한 기회를 제공 해 주신 朝倉敏夫 교수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는 「2002년 서울 스타일——이선생님댁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 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선생 일가의 생활재 자료」를 기초로, 한국사회에서 있어 (생활재 조사에 의한) 생활문화 연구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한국 측에서는 주로 물질 문화연구자가, 일본측에서는 현대한국 생활문화의 기초적 연구의 멤버가 논의에 참가했고, 필자는 「사물」의 성격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제의 받았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적어 보고자 한다.

2 「사물」의 성격

2.1 사물으로써 말하다, 사물이 말하다

박물관의 전시란 주로 「사물」의 전시인데, 이 경우, 기획자는 「사물」을 통해 (대상문화를) 말하게 된다. 이 작업은, 바꿔말하자면, 「사물으로써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시된 사물이 스스로 말하는 「사물이 말하는」 영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기획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관객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시된 「이선생 일가의 생활재」는, 물질을 통해 「사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관객 한명 한명이 느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사물에의 경험에 의해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사물이 다의적인 존재로서 직접 그 개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런지 싶다.

2.2 물질의 영향력

한개의 사물이 기존의 생활양식과 체제까지도 바꿔버린 사례를 역사상에서 찾아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서양에 건너간 향신료가 서양인의 식생활 스타일을 바꾸고 아시아에의 항해를 촉진시켰으며,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아편에 의해 중국(청나라)은 한때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16~17세기에 노예와의

교환품으로 서아프리카 사회에 들어간 총은 결과적으로 노예획득을 용이하게 한 한편, 지역의 정치적 통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2.3 세계화=「문화의 균질화」?

이와 같이 사물이 가져오는 충격은 생각보다 강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지구 규모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균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확실히 PLAY STATION 이라는 일본의 게임기를 세계가 공유하게 되고 있는 것이나, 서양식 근대화를 추진시켜 온 일본이나 한국이 서양사회와 많은 사물을 공유하게 된 것을 고려해 보면, 균질화는 가까워서 느낄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전통가옥이 아파트나 맨션등과 같은 집합주택으로 변해왔다고 해도, 일본의 맨션에는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한국의 맨션에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냉장고나 세탁기 등이 현대문명의 상징처럼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김치냉장고나 삶는 세탁기 등 독자적인 문화가 편입되어 가는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의 조사지였던) 세토우치해의 섬에서는 초음파 탐지기 라든지 GPS (위성 이용 측정 시스템) 등을 이용, 어민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일된 사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첨단 장비를 「자기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러한 사례로부터도 같은 견해를 말할 수 있겠다.

2.4 사물과 문화——보편성 (대표성) 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일본의 대학생에게 소지품 중에서 일본 문화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 본 적이 있다. 많았던 대답은 (여름이었기 때문에) 부채, 화지(和紙), 우메보시(매실절임), 부적 등이었다. 그러나, 그 외 소지품의 대부분은 어떤 문화에 속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듯 보였다. 여기서 의문점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이 특정의 문화(의 사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이었다. 예로 든 것처럼 분명하게 일본 문화 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또한 많다. 이것은 사물이라는 물질 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 일반에 걸쳐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공존(문화의 혼합)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이선생 일가의 사물은 도대체 얼마만큼 한국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3 「신체기법」의 전시가능성

미이라 · 해골 · 문신등과 같이 「사물화」된 인간(인간의 일부)의 전시는 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신체기법도 사물로 간주, 전시하는 일도

가능한 것은 아닐까.

신체기법이란 모스가 제창한 개념으로, 간단히 말하면 인사나 앉는 법, 자는 자세 등 사회, 문화적으로 전승·습득된 신체의 동작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을 보면, 배가 고파진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는 본능적 부분과, 식사예절이나 특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라는 문화적 부분이 혼재하고 있다. 후자의 문화적인 부분 중 신체와 관련된 예의 범절이 바로 신체기법이다.

히로시마현 토시마의 어민은 전통 어법인 한줄 낚시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들은 물고기 종류에 적합한 어장의 위치와 풍향, 풍속, 해수의 흐름, 수심, 물고기가 있는 곳과 그 거리, 물고기가 낚시줄을 무는 정도 등을 끊임없이 몸소 확인하고 있다. 즉, 신체를 또 다른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통한 제시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 어구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연기하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맥락으로, 한국 전통 의상을 한번 입어 보게 하거나, 한글 교실을 여는 등 이번 전시중의 행사에서도, 입어 보기나 읽고 쓰기 라는 신체기법이 전시되었던 것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이번 전시와 관련하여 이후의 과제로서 2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다.

먼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방법과 사물에 집착하는 정도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일본이 애니미즘의 세계 (사물의 세계) 라는 데 비해, 한국은 유교 (성리학) 의 세계 (이념의 세계) 였다고 일컬어진다. 앞으로 사물을 통한 문화 전시를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만큼 유효하고 분명한 말이며, 또 그 실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통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선생 일가의 사물과 관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가는 가족의 「공동의 기억」으로서의 생활제 전부와 헤어졌다는 것인데, 예전의 기억이나 가족의 끈 (의 일부) 도 함께 없어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일가가 어떻게 기존의 가족관계를 회복해 가는지, 또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일도 새로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헌

朝倉敏夫・佐藤浩司編

2002 『2002년 서울스타일』千里文化財團.

朝倉敏夫

1994 『日本の 야키니쿠 韓國의 사시미』農山漁村文化協會.

伊藤重人

2003 「韓國에서 『물건을 통해서 보는』 일」朝倉敏夫編『「물건」으로 보는 朝鮮民俗文化』新幹社.

金柄徹

2002 「漁民의 身体技法」『民族学研究』65 (2).

M. 도스 (有地亭・山口俊夫訳)

1976 『社会学과 人類学 II』弘文堂.

内掘基光

1997 「물건과 사람으로 만들어진 세계」青木保他編『「물건」의 人間世界』岩波書店.